

어린이 책방,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손짓

박물관·전시회 탐방, 기자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어린이 전문서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TV나 전자오락에 매달리기 십상인 어린이들에게 서점은 그저 '책이 잔뜩 있는' 환경만으로 훌륭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서점 주인들의 손길과 의욕이 덧붙여져 어린이들을 재미 가득한 책세상으로 유혹하고 있다.

전국에 어린이 책방은 모두 60여곳.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책을 고르고 사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이 책을 직접 고를 수 있게 책표지가 보이도록 전시하고, 집어든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서점의 역할에 도서관의 기능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작은 모임으로 서로의 생각 나누

서울 관악구 신림4동에 위치한 파란나라(대표 유경희)는 5세 이하의 유아들이 좋아하는 퍼즐이나 블록쌓기 등의 나무 놀이도구를 마련해 놓았고, 목동의 네모상자(대표 오민자), 광명 철산동의 동원(대표 정의신)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준비했다. 일산의 동화나라(대표 정병규)는 10평 안팎의 다른 어린이책방에 비해 30평 정도로 넓다. 서점 한 가운데 널찍한 테이블을 책 표지가 보이도록 진열하고, 뽑아 보기 쉽게 책꽂이 높이도 낮췄다. 20평 규모의 수원시 교동 꿈의나라(대표 최윤경)는 전체 공간의 3분의 1 정도를 책읽는 공간으로 할애했다. 서울 상일동의 아름드리(대표 조은희)의 경우는 실내 공간뿐 아니라 앞마당까지 개방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방치기·남대문놀이·제기치기·닭싸움 등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전통놀이는 독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름드리 주인 조은희씨의 말이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 문화를 주도하는 것도 서점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 어린이 회원을 모집해 현장학습을 떠난다거나 정한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작은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다.

화곡동의 동화나라(대표 이영란)에서는 매주 토요일이면 5~6세의 꼬마들이 새로

어린이 전문책방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교육여행이나 현장학습을 떠나고 기자교실이나 신문만들기 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제 서점은 어린이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산 동화나라의 '어린이 기자교실'.

나온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95년에 제2회 평등부부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영식·최숙희씨 부부가 운영하는 목동의 다물은 더욱 적극적이다. 평일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과 함께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을 찾는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나 근교에 있는 농업박물관, 우정박물관 등 특수박물관과 특별전시회를 돌아본다. 토요일엔 덕수궁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고 책방으로 돌아와 서로의 느낌을 교환하고 글로 기록하기도 한다.

한달에 한번 일요일 하루는 '살아있는 교육여행'도 떠난다. 그간 강화도·광릉·공주·부여·온양민속박물관처럼 자연이 있고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곳을 골라 다녔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은 강원도 철원의 철새 도래지. 참가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닭 잡고 옥수수밥도 먹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런 행사를 책읽기보다 더 재미있어 한다.

일산의 동화나라는 선생님까지 모셔놓고 초등학교 4~5학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자교실'을 열고 있어 특이하다. 현재 15명 참여하고 있는데, 주제를 정해 자료조사·인터뷰 등 취재를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사를 작성한다. "성과물이 눈에 보이니 재미있어 하고, 토론을 하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부모들도 만족스러워 한다"고 담당 선생님인 이진희씨

는 말한다. 불꽃이 튀었던 '보신탕 논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저학년들은 격주로 동화작가인 김향선씨와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광명시 철산동의 동원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직접적으로 독서와 상관은 없지만 눈썰매장이나 가까운 산에 오르면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도 넓게 보면 어린이 서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유다.

남다른 시명감으로 문화운동

그래서인지 어린이 서점의 활동 가운데는 부모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서토론 모임은 자녀 독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 자녀교육에 관한 여러가지 도움말을 얻는 자리가 된다. 부천 소사동의 아빠와 크레파스(대표 이병현)에서는 어머니들이 인근에 서로의 아이들을 돌아가며 돌봐줄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까지 마련했다. 서울 상일동의 아름드리는 매주 한번씩, 광명시 철산동의 동원은 매주 화·수요일 이틀씩, 일산의 동화나라는 일주일 내내 '꿈마당 이야기마당' 등 각각 다른 5팀의 어머니 모임을 오전 시간에 갖는다. 봉천동의 미운돌맹이와 제주도의 곰솔(대표 현영미)은 유아 어머니들이 모여 자녀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 전문서점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등과 연계해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전의 아라야 글방(대표 김창중)은 YWCA와 '동화읽는 어른' 모임에, 여수 서당(대표 김기남) 역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장소를 제공한다. 대구 어린이서점(대표 정미숙)은 책을 읽는 모임에서 나아가 어머니들이 직접 동화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성과물이 모이면 묶어서 돌려보기도 한다. 제주도의 곰솔은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해 '가족 도서신문 만들기'를 운영해 전시회를 갖기도 한다.

봄·가을이나 여름·겨울방학을 전후해 1년에 두번씩은 각종 문화행사를 벌인다. 어린이날을 전후해 그림책 원화 전시회 동화에 나오는 그림으로 슬라이드 상영을 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 교동의 꿈의나라, 상일동의 아름드리, 인천 연수동의 색종이 등. 상일동의 아름드리는 동화인형극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는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를 공연했다.

아직 행사를 갖지 못한 신생 어린이책방들도 여러가지 강좌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신림동의 파란나라와 망원동의 샘터(대표 이희배)는 올해 안으로 '바람직한 독서 지도법'의 강좌를 마련할 생각이고, 광명시 철산동의 동원도 '그림책 고르는 방법', '학부모를 위한 독서 및 작문' 등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천의 아빠와 크레파스는 동화작가나 그림책 작가들을 초청,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어린이서점이 활성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 어린이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전한다. 대부분의 지방서점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학습참고서를 파는 일반 '문방구서점'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유도 그 때문. 주로 단행본을 들여놓고, 어린이들에게 허물없이 책을 읽게 하다 보니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는 책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개의 서점주인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책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노력한다.

— 이현주 기자